

욕설·급제동...불친절 시내버스 여전하다

광주 시내버스 타 보니

17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남구예술회관 방면으로 향하던 광주시내버스 '봉선 37번' 운전기사는 급제동과 함께 큰 경적소리를 울리며 급정거했다. 앞 승용차가 천천히 가는 바람에 정지 신호에 걸리자, 나를 화풀이를 한 것이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려 했다.

정지 후 신호 대기중이던 운전기사는 화가 난 듯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고, 버스 승객 중 엄마의 품에 안겨있던 두 살 어린아이는 울음까지 터트렸다.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버스승강장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손수레를 들고 북구청 방면 봉선 27번에 탑승했다가 낭패를 봤다. 탑승중 손수레가 이곳 저곳에 부딪히자 버스운전기사가 욕설과 불만 섞인 말을 뱉었고, 이

승객 눈치주고 정류장 지나치고 에어컨 가동 놓고 잇단 마찰 시민 불만 폭주 속 민원 급증 다음달 세계수영대회 앞두고 광주 이미지 실추 우려

에 노인은 항의도 못하고 무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 버스기사는 또 일부 승객이 버스 안이 덥다며 냉방기(에어컨)를 강하게 틀어 줄 것을 요구하자 "에어컨을 세게 켜면 차가 나가지 않는다"며 목살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였다.

불친절한 일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다음달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7월 12일~28일)를 앞두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여전히 대중교통의 불친절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제기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2016년 822건·2017년 602건·2018년 953건 등 매년 수백건 씩 접수되고 있다. 민원 내용은 대부분 승강장 통과·승하차 거부·불친절·배차시간 미준수 등으로 올 들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016년 152건·2017년 62건·2018년 49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버스업체에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서비스개선을 위한

관리·감독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름이 시작됐지만 냉방기 운용 관련 기준마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간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불편사항이 확인되면 버스업체를 상대로 과태료나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고 버스운전기사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만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수노조와 함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친절캠페인을 진행하고 접수된 민원을 분석해 해결책을 찾겠다"며 "친절 기사가 많은 버스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내버스 친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6월 기준 노선 101개, 시내버스 1002대가 운용 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올 첫 일본 뇌염모기 발견

도보건강환경연구원 주의 당부

전남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됐다.

전남도보건강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의 6월 셋째주 모기 채집에서 올 첫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피부 노출 최소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17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선 9월에 1명이 발생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주로 4~10월에 활동한다. 특히 8~9월에 개체 수가 많아지며, 밤 10시께 활발하게 활

동한다.

일본뇌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나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지각 이상 등의 증세를 보인다. 이후 계속 진행되면 의식장애, 경련, 혼수에 이르고 대개 발병 10일 이내에 숨진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활동이 시작된 만큼 야외 활동 시 밝은 색 긴 바지와 긴 소매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미영 전남도보건강환경연구원 감염병 조사과장은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는 여름철 야외활동 시 모기 회피 및 방제 요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원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00억원대 사이버 도박장 개설 40대 구속

공범 2명 불구속 입건

순천경찰은 "100억원대의 사이버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제공)로 A(42)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41)씨와 C(4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중국 칭다오에 서버를, 서울에 사무실을 차린 뒤 1년 4개월간 사이버 도박장을 운영해 1000여명으로부터 148억원을 받

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에 11개 지사를 관리했으며 중국 본사의 책임자와 새로운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던 중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공범인 B씨는 전남지역 지사를 관리했으며 C씨는 광양의 한 PC방에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개설한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지역 지사로 수사를 확대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양망기에 말려 들어가 외국인 선원 숨져

신안군 흑산도 바다에서 조업중이던 30대 외국인이 양망기(그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에 말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께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9km 바다 위 K호(24·승선원 7명)에서

작업 중 외국인 A(39·베트남)씨가 양망기에 빨려 들어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했으나,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멎은 상태였다.

해경은 선장 및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로또 1등 당첨금 탕진한 후 교도소 들락날락한 줌도둑



○...10여 년 전 로또 1등 당첨으로 14억여 원을 손에 쥐었던 30대A가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후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줌도둑 신세로 전락.

○... 17일 부산연세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7월 부산시 연제구 한 주점에서 단체 예약 선불금을 주겠다고 하며 종업원을 밖으로 내보낸 뒤 400만원짜리 귀금속 1점을 훔치는 등 부산·대구 지

역 식당 16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36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는 것.

○...A씨는 지난 2006년 20대 중반 나이에 로또 1등에 당첨되며 한때 19억원(세금 포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수배 중 우연히 로또 1등에 당첨되며 인생 전환점을 맞았으나 돈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후 수차례 교도소 신세를 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압분사기로 갯벌 걷어내고 흡입호스로 바지락 채취 불법조업 선장·선원 적발

바다 속에서 고압분사기로 갯벌을 걷어내고 흡입호스로 바지락을 채취하는 등 불법 조업행위를 한 선장과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14일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남면 소두라도 남동쪽 900m 바다 위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해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D호(8.55t, 승선원 4명) 선장 A(54)씨와 잡수사 B(5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 등은 같은 날 새벽 4시께 여수시 국동항에서 출항해, 7시부터 바다 속에 들어가 고압분사기와 석션호스 등 불법어구를 이용해 바지락 30방(1방당 14kg) 총 420kg을 채취한 혐의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수영대회 경기장 이쪽으로 가세요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을 25일 앞둔 17일 오전 광주 도심의 주요 도로 표지판에 경기장 방향 안내표시가 붙여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법 '임수경에 '중복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임수경 전 정치시민연합 의원을 '중복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복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복

합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지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 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정정해역에 중복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인천)시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자신을 '중복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중치 5.0 부여)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300억) 추진 가격외에 경쟁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